

창간호
2013. 9. 1

무공수훈신문

무훈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회장 : 박종길(무공수훈자회 회장) | 발행인 : 신동설 | 편집인 : 맹태균 | 인쇄인 : 이철구 | 편집주간 : 강성원(무공수훈자회 사무총장) | 발행처 : 국가안보미디어그룹 서울, 가 09957

8·15는 광복절 & 건국기념일

보라! 저 훈장을 보라!



보라! 저 영예로운 훈장을 보라
저 훈장을 어떻게 가슴에 달았는지 생각해 보라!

보라! 고속도로위의 차량 물결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의 바탕을 생각해 보라!

“6.25전쟁은 한국의 승리”

오바마 대통령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6·25전쟁은 ‘무승부’가 아니었으며 한국의 ‘승리’(victory)였다.”

6·25전쟁 정전 60년 기념행사가 열린 7월 2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의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Barack Obama 대통령은 5000여명의 참전 용사와 희생자 유가족, 일반 시민 앞에서 ‘6·25전쟁은 한국의 승리’였으며,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기적처럼 이뤄낸 한국의 현재 모습이 곧 ‘승리의 증거’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5000만 한국인이 누리는 자유, 활발한 민주주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보라. 이는 억압과 빈곤으로 점철된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韓·美·北의 정전 60년

보라! 이 한국을 보라!



한미 양국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 60년 기념행사’에서

“참전용사들 감사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유와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월 27일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감사를 전했다.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한다고 선언한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핵 포기과 북한의 태도 변화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7월 22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린 유엔군참전용사추모식에 참석해 묘역을 참배하고 유엔전몰장병을 추모했다. 박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60년 전에 전쟁은 멈췄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불안한 평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땅에 또 다시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에 광고를 수록해주신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광고문의 02)496-0155

창간호 지면 안내

창간사·축사 | 격려사·축사..... 2~3면
본회 소식 (지부 방문) 명예수당 승계 건의 4~5면
장례봉사단 운영 6면
6·25전쟁영웅 ‘영원한 일등상사’ 7면
초대석 | 박종국 서울 지부장 8~9면

회원마당 | 지부 지회 행사 10~11면
탐방취재 | 김명연 영동지회장 12면
애국칼럼 | 정전60년 행사 13면
무공수훈신문 만세 | 구독자 신청명단 14~15면

창간사

무공훈장의 빛! 바로 비추는 매체로

먼저 무공수훈신문 창간을 10여만 회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10대 집행부가 출범된 지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변화에 첫 번째 결실이 무공수훈신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제한된 여건으로 본회의 소식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종전 무훈보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변화와 개혁을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신문이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회원 모두는 우리를 대변하는 이 신문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가꾸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6·25전쟁이 정전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전쟁은 북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박종길 회장

파괴하려는 세력들을 제압하고 나라를 지키는 핵심적 안보역군으로서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의수도 워싱턴에 세워진 6·25전쟁 참전 기념탑에는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무한한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 공갈 협박으로 부터 좀비세력 종북좌파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불타는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적의 총탄 앞에 맞섰던 그정신이 절실한 오늘입니다.

미국 등 선진외국의 경우 기습에 무공훈장을 단 참전군인들에게 길 가던 국민들이 거수경례로서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기습에 훈장 달고 거리를 다니는 것이 오히려 어색함으로 변해버

‘호국전투영웅’을 제대로 알게

공산집단이 대한민국과 자유세계에 대한 도전이며 동족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한 무례함의 극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이 땅을 위해 목숨을 바쳐 승리하였습니다. 먼저가신 호국영령들과 생존한 영웅들의 빛나는 공적과 충성스러웠던 실상을 국민들과 전후 세대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사명을 무공수훈신문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멸의 호국전투영웅으로서 대한민국을

린 오늘의 현실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국가가 수여한 무공훈장이 영예스럽게 비추어 지도록 우리 스스로가 증언해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육신은 쇠하여가나 나라사랑 정신과 국가유공자로서의 영예, 그리고 굳은 신념으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이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새로이 창간된 무공수훈신문은 영예

축사

국가안보 정론지로 성장하길

존경하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박종길 회장님! 그리고 임직원 및 회원 여러분!

무공수훈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많은 애국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올해는 특히 6·25전쟁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이 되는 해로, 무공수훈신문의 창간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호국활동을 널리 알리고, 나라사랑정신을 전파하는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무공수훈신문이 국가안보의 정론지로서 애국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국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

자유공자의 명예를 제고시키고, 자라나는 세대와 모든 국민들에게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계승시키는 훌륭한 언론 매체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6·25전쟁 유엔군 참전 정전 60주년을 계기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며, 국민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6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무공수훈신문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모든 국민들이 무공수훈신문을 애독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운 무공훈장의 빛이 국민들에게 바로 비추어 지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고, 세월의 흐름으로 느슨해진 우리의 애국심을 새롭게 함양하는 기회가 되며, 위난 시 위국헌신의 기풍이 충만해지고 국가안보는 그만큼 더욱 튼튼해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손자들이 “훈장 받은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냐”고 물어 볼 때에 “나는 이렇게 싸웠고 조국을 지켰노라”고 힘 있고 자신 있게 답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터전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땅입니다. 흑한 산악지역에서, 열사의 정글에서,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전적지들 그곳에는 우리의 땀방울과 피 흘림의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흐르는 역사에는 진실이 숨 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무용담과 증언들이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아 후세들에게 널리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공수훈신문을 통하여~ 감사합니다.

추석특별선물 건강식품 특별 할인 판매

“특” 고려홍삼정농축액 1세트(240g x 2병)을 더 드립니다!(9월 말까지)

참흑마늘진액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건강식품 마늘 인삼을 숙성시킨 것이 홍삼이라면 마늘을 숙성시킨 것이 흑마늘입니다. 100% 국내산 마늘로 기력보강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1세트 : 70mlX60포X3박스=180포(3개월분)
소비자가 298,000 ⇒ 할인가 **158,000원**

참녹용보위골드

옛부터 보약하면 녹용이죠. 녹용은 옛부터 가장 널리 알려진 보양식품으로 몸을 튼튼히 하고 체력보강에 좋으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보양식품입니다.

1세트 : 70mlX60포X3박스=180포(3개월분)
소비자가 298,000 ⇒ 할인가 **158,000원**

6년근 참홍삼골드

고품격 홍삼을 진하게 마셔요~ 홍삼특유의 진한향과 맛을 담은 고품격 진액입니다. 원기회복·자양강장·면역력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 홍삼캔디(200g) 1봉지 증정

1세트 : 70mlX60포X3박스=180포(3개월분)
소비자가 298,000 ⇒ 할인가 **168,000원**

참심마니 산삼100

산삼의 기(氣)를 드셔보세요~ 산삼의 희귀성과 고가격 때문에 쉽게 드실 수 없는 전충산삼을 원료산삼으로 배양해 생산한 고품격 제품으로 산삼의 기(氣)를 드셔보세요.

1세트 : 70mlX30포X4박스=120포(2개월분)
소비자가 396,000 ⇒ 할인가 **196,000원**

● 제품 먼저 받아보시고 대금은 아래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 2세트 이상 주문시 10% 추가할인 또는 1박스 더 드립니다.

보훈건강선물센터 (02)720-4691~3 **입금계좌** 농협 100124-56-035852 **할인호** 011-743-2272
 제조원 | 경북농축산영농조합 국민 387-21-0180-012 **할인호**

창간 격려의 글

무공수훈 자존으로 호국선봉 나서라!



백선엽 (白善燁)
대한민국 육군협회 회장
예비역 육군대장

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년에 새롭게 출범한 박종길 회장님과 운영진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이같이 훌륭한 신문을 창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0년의 오랜 세월동안 무공수훈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놀라운 경제발전이 이룩해 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대한민국의 100년 역사를 돌아켜 보면 국력이 허약했기에 나라를 빼앗겼고, 1948년 독립을 했어도 아무런 대비 없이 우리는 공산군의 기습남침을 당해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의 도움에 힘입어 3년간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후, 6·25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딛고 성장한 우리 국군은

월남파병으로 세계에 한국군의 저력을 과시하고 나라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에 두각을 나타낸 대한민국의 발전은 무공수훈자 여러분들이 피흘려 세운 값진 대가이며, 그만큼 후손들에게 영광된 조국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5천년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후세들이 자유가 거저 얻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무공수훈자 여러분이 겪은 아팠던 역사가 우리 후세들에게 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 60년간 부자 3대에 걸쳐 조금도 변함없는 북한 공산집단

의 대남적화전력과 국내 종북세력들의 주도면밀한 저항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6·25전쟁과 월남전에서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했던 무공수훈자 여러분들은 이제 창간된 무공수훈신문에서 얻어지는 정보와 여론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젊은 세대를 포함한 후손들에게 국가안보의식을 가르치고 국가수호에 앞장서는 호국의 선봉이 되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무공수훈신문이 국가의 안보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무공수훈자 가족 모두에게 유익한 신문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무공수훈자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공수훈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금년은 한반도에 6·25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60주년이 될과 동시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어언 60주

창간에 부치는 노래

지금 조국만세를 부르자!

국립현충원 6·25전쟁묘지에
월남전 묘지에, 순국선열 유공자 묘지에
하얀 예복을 입고 엄숙하게 도열하고 있는
호국영령들의 푸른 영혼을 만나본 적 있는가.
이글거리는 태양아래 60여년, 40여년
그 긴 세월동안 한번 다짐한 충성맹세를
살아서도 죽어서도 커다란 침묵으로 지키고 있는
저 위대한 순국영령들의 우레 같은 조국애를
그대들은 듣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조국이 걸어준 빛나는 훈장과 함께
하얀 묘비에 새겨놓은 전장과 산화한 일자의
선명한 묘비명으로 애국애족의 맹세를 지켰노라
불퇴전의 용맹심을 영원히 전하고 있노라
그대들은 불타는 가슴으로 그 소리 담고 있는가.

조국은 알고 있노라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노라
분단된 조국의 끝없는 고통을 어루만져
행복한 웃음 줄 수 있는 묘법을 다 알고 있노라.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은 자, 무공수훈자의
한없는 나라사랑과 화해, 포용을 기다리고 있노라.

한반도 조국의 정전60주년, 월남 패망 40여 년
결코 사라지거나 잊혀 지지 않을 전쟁의 상처
갈등하는 자 모두 국립현충원 묘비 앞에 서서
광화문 광장 백 만 송이 무궁화 꽃송이 앞에서
한마음으로 머리 숙여 통일을 염원해야 하느니,
지금 서 있는 곳 든든한 조국 땅에서
손에 손을 잡고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의
충성맹세를 일념으로 소리 높여 불러야 하느니.

무공수훈자들이여! 지금 조국만세를 부르자.
뜨거운 태양아래 태극기 힘차게 휘날리며
활화산 같은 애국심을 온 누리에 터트리자.
조국은 하나이다. 국민은 한 덩어리이다
하나로 뭉치면 영원히 크게 사리니
조국통일 이루어 번영발전하고 행복하리니.



김성부
시인
파월청룡부대 소대장
국가유공자
총무무공훈장

본부·지부 공감대 나누다

박종길 회장, 인천광역시지부 초도방문

본회 박종길 회장이 인천광역시지부를 시작으로 지부 초도방문에 나섰다.

박종길 회장은 8월22일 취임 후 처음 인천시지부(지부장 김재호)를 방문, 지부의 일반현황을 청취하고 본회 당면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날 방문에는 김옥희 부설유족회 명예회장, 이태우 본부 부회장, 강성원 사무총장, 조영신 기획실장, 진교준 조직국장, 이성길 유족국장, 김청호 총무국장, 이대섭 사업국장 등 중앙회 실무 책임자들이 동행하여 인천시지부 임원들 및 소속 지회장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도 가졌다.

김재호 인천시지부장은 “첫 번째로 인천을 찾아준 회장께 감사하다”며 “인천시지부는 관행에 젖은 각종 규정을 자체적으로 개정하고, 무공수훈자회의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더욱 봉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지부장은 현황 보고를 철저히 준비한 모습이 돋보였다.

박종길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황 보고가 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큰 점수를 주고 싶다”고 격려하며 본회의 역점 사업(추후 본지에서 상세히 보도 예정)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나는 회장으로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봉사하러 왔다”며 “모두가 봉사한다는 각오를 갖자”고 당부하여 박수를 받았다.

이날 눈길을 끌었던 것은 ‘본회 회장의 초도방문’이라는 형식적인 관행을 벗어나 본부 실무책임자들이 각자 자신들의 업무를 설명하고 지회장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 매우 생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날 지역 원로인 문영도 전 이사과 최득수 원로회원이 참석하여 박회장의 초도 방문 자리를 더욱 빛냈다. 특히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최득수 원로는 육군부사관학교 교육대대를



본회 박종길 회장이 본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재호 인천지부장이 지부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최득수대대’로 명명될 만큼 명성이 자자한 6.25전쟁영웅이라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외 참석자들

지부분부 : 인천시유족지부장 조남춘, 사무처장 김진수, 행정과장 정순만, 직원 이정희

지회장 : 김명선(강화), 정응환(계양), 양규백(남구), 황인권(남동구), 오수응(동구), 손창수(부평구), 박만균(서구), 김진해(연수구), 민점식(옹진군), 이증(중구) 【고명석 기자】



본회 회장, 본부 및 지부 간부들과 지회장들 기념촬영

무공수훈신문 편집위원, 주재기자		
편집주간	강성원	사무총장
편집위원	조영신	기획실장
	진교준	조직국장
	이성길	유족국장
	김청호	총무국장
	이대섭	사업국장
편집위원간사	장성국	홍보부장
편집자문위원	박종국	서울지부장
	임영길	부산지부장
	우기원	대구지부장
	김재호	인천지부장
	강철부	광주지부장
	이정수	대전지부장
	이승구	울산지부장
	기노영	경기 지부장
	황용기	강원지부장
	이종각	충북지부장
	장기일	충남지부장
	이태영	경북지부장
	김유성	경남지부장
	김창호	전북지부장
	변재현	전남지부장
오승환	제주지부장	
주재기자	황재휴	서울사무처장
	허수용	부산사무처장
	임채환	대구사무처장
	김진수	인천사무처장
	임재광	광주사무처장
	손재하	대전사무처장
	김성남	울산사무처장
	박영근	경기사무처장
	이중석	강원사무처장
	김경시	충북사무처장
	이두화	충남사무처장
	김문영	경북사무처장
	이용복	경남사무처장
	오영수	전북사무처장
	황인태	전남사무처장
허영구	제주사무처장	



서울지부 안보관광 행사



최신형 관광버스 50여 대 보유

무공수훈자회 협력업체

HNT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국내외관광, 효도관광, 신혼여행, 해외참전국 순례

(주)빙그레하나관광

- ▶ 각 지역별 안보관광 스케줄 안내
- 유엔참전국 전적지 순례 및 전시관 관광 또는 세미나
- ▶ 경로우대 국내·외 관광안내 - 실버투어

명예회장 백삼용 : 02)725-5636

대표이사 백중현 : 02)933-1575, 011-248-5829

Fax 02)933-1576

담당부장 최석우 : 010-5048-3553

무공수훈자회 회원님을 가족같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창간

무공수훈신문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울특별시지부

본회대의원 백삼용

H.P : 010-5912-1033

본회 회장 주요 활동



반역세력심판 8.15국민대회 참석

박종길 회장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인천지부 회원 100여명은 8월14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 반역세력 심판 8.15국민대회에 참석하여 NLL을 무력화 시키려는 종북세력을 규탄하고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겼다.



제6회 우남 이승만애국상 시상식 참석

박종길 회장은 8월 1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6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에 참석, 축하 하였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태평양시대위원회 주최, 대한민국사랑회 주관-이상훈 전 국방장관, 김효선 건국기념보국회 사무총장 수상)



유정복 안행부장관 초청 오찬회서 간담

박종길 회장은 7월 26일 크리스탈호텔에서 열린 애국단체총협의회 주최 오찬 간담회에 참석, 이 자리에 초청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과 무공수훈자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월남참전기념일 고엽제 전우 만남의 장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주최로 7월 18일 오후 2시 창원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9주년 월남참전기념일 및 제16차 고엽제 전우 만남의 장에 본회 박종길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조원주 제3대 부설유족회장 취임

제3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장에 조원주 전 충남지부장이 전임 김옥희 유족회장에 이어 지난 4월24일 임명되었다.

부설유족회 새 집행부 출범에 따라 6월 11일 본부 회의실에서 부설유족회 전반기 유족 지부장 회의를 개최하여 본부 현황과 당면과제 설명을 듣고 유족회 설립 목적에 부응한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조원주 부설유족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부설유

족회 명칭을 명실상부한 무공수훈자회 유족회로 법 인화하고 무공영예수당을 유족이 승계하여 입법화 할 수있도록 헌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무공영예수당 유족승계는 유족회의 숙원사업이자 본회 박종길 회장의 공약사항이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본인에 대한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다.

【고명석 기자】

무공영예수당 승계 국회에 법제정건의 국회 사무총장 등 예방

본회 박종길 회장과 조원주 부설유족회장은 7월 9일 오전 국회 정진석 사무총장을 예방하여 전투영웅들의 무공영예수당 유족승계와 관련한 현안을 설명하고 유족생활안정대책을 위해 입법 및 정책개선 지원을 건의 하였다.

또한 본회 박종길 회장은 7월 31일 이성길 유족국장 등 직원을 대동, 고현욱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예방하여 무공영예수당 유족승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제정 지원을 건의하였다.



지난 4월24일 본부 회의실에서 임원과 16개 시도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원주 부설유족회장 임명장 수여식.



8월 14일 오전 본부 회장실에서 박종길 회장이 김옥희 전 부설유족회장에게 명예회장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국회 정진석 사무총장 예방- 왼쪽부터 이성길 유족국장, 본회 박종길 회장, 본회 조원주 부설유족회장, 정진석 사무총장, 정순만 유자녀회장



안보현장 체험연수

본회 박종길 회장을 비롯하여 각 시도지부장, 임직원 등 38명이 7월16일~17일 1박2일 일정으로 판문점과 강화도 평화전망대 그리고 광성보(강화해협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를 견학하는 안보현장 체험연수를 통해 국가유공자로서 안보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자긍심을 느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지정업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현대휘장(現代徽章)!

대표 이상수
전화 02)793-9939 / 773-6580
팩스 02)773-6581
핸드폰 010-8731-9939
100-095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17-3 (남성빌딩201호)
농협 094-12-008822 우체국 010025-06-001928

규격과 선 하나도 오차가 없는 정통 휘장만을 고집합니다

무공·유공, 참전자들의 조끼, 모자, 배지, 목걸이, 넥타이 모표, 국가유공자 휘장, 문패, 수첩, 참전휘장, 월남참전 기념메달, 경축기, 근조기

6.25참전 월남참전 휘장류 문패 (특수금장 6cm * 15cm) 참전 특수액자

마지막 가는 길~ 태극기 품에...

무공수훈자 장례예우 정성껏!!

- 무공수훈자회 중점 사업
1. 장례단 선양행사 운영
 2. 호국 영웅 영예의 전당 건립
 3. 무공 영예수당 배우자 승계
 4. 무공수훈신문 간행
 5. 홈페이지 재구성(리뉴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단 선양행사 운영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오는 9월부터 장례단(葬禮團) 선양(宣揚)행사를 지원한다.

무공수훈자회 본부에서는 무공수훈자들에 대한 예우와 가족들에 대한 사기 진작 취지로 무공수훈자 본인 사망 시 장례단에 의한 경건한 영결 행사(의식)를 치러준다.

후손에게 자부심과 긍지 박종길 회장의 아이디어

이 행사는 박종길 무공수훈자회 회장이 경남지부장 재직 당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당시 경남지부는 2006년 6월부터 자체적으로 장례단(20명)을 구성하여 도내 무공수훈자 회원들의 장례식을 엄숙하게 치러주었다.

무공수훈자장(葬)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고인에 대한 예우와 위상 제고를 위해 마지막 가는 길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에서 직접 장례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태극기 전수식을 위해 영안실로 입장하는 장례단

1. 장례단 선양행사 운영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사망 시 영결식 지원으로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심 향상에 목적을 둔 장례단 선양행사를 9월부터 무상으로 운영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무공수훈자회 장례단과 함께 하십시오.

장례단 선양행사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위국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사후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정성을 다해 그 유훈을 계승하는 행사로서 후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충절심을 일깨워주는 선양행사이다.

국가유공자면 지원 가능
9월부터 수도권 지역부터 실시

대상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정회원, 본회 공헌자, 독거 국가유공자비회

원 포함), 지부장 추천자, 기타 보훈단체장 추천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장례단은 수도권에서 1차로 운영하며, 이후 전국 지부별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빈소에 내방, 헌화 및 분향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단체 조문행사, 발인 전 태극기를 영현에 덮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임을 선포하는 태극기 전수 행사, 유훈을 발표하여 후손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 그 위상을 승계하는 영결 행사, 영현과 이별의 의식인 영현 행렬행사 등이 있다.

유족이 지회에 요청하면 영결의식 행사지원

지원 요청 방법은 유가족이 거주 지회에 요청하면, 각지회는 소속 지부로 보고하고 지부는 본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 지원한다.

장례단 선양행사는 각종 상조회와 달리 비상업적인 무공수훈자회 차원의 장례의식 행사이다.

궁금한 사항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홈페이지(<http://www.mugong.kr>)나 본회에 전화(02-790-9652-4 이대섭 사업국장 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김신혜 기자】



대전현충원 입구에서 영정을 들고 입장하는 장례단



장례단 주재로 치러지고 있는 국가유공자 장례식

격조높은 장례토털서비스

복잡하고 어려운 장례준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가유공자, 향군정회원, 우대!

▶ 편리한 장례서비스

- 고인을 위한 장례용품 / 상주용품일체 제공
- 장례절차, 사망신고등 행정처리 안내
- 고인 운구를 위한 앰블런스, 리무진, 버스 제공
- 전문장례지도사 및 장례 도우미 파견
- 국가유공자, 향군정회원, 우대
- 가입후 누구에게라도 양도, 양수 가능
- 국립묘지 안장업무 안내 (대상자에 한함)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 중요정보고시

1. 중도해약환급금 및 환급기준
가. 회원약관 제15조 제 규정예 의함
나. 환급금액은 신청일부부터 제 3명일 이내 환급.
다. 만기 3개월 후 해지시 납입금액 100% 환급
2. 소비자 분쟁시 분쟁의 해결기준
•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함
3. 주요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 본사 홈페이지(www.korvafamily.com) 상품안내 참조
4. 총고객환급의무액, 상조관련자산 및 공인회계사 감사여부
(2012년 12월 31일 기준)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관련자산
96,931,109천원	138,349,992천원

※ 총고객환급의무액대비상조관련자산보유비율 142% (공인회계사의 회계검토를 받았음 - 삼일회계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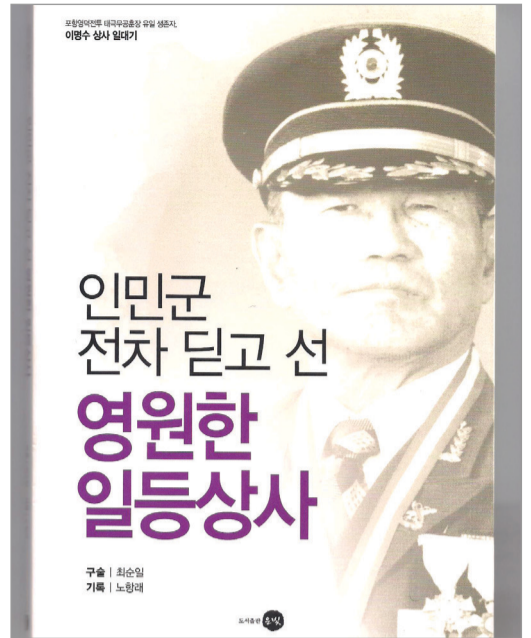
5. 고객불입금의 관리방법
• 고객불입금의 61.1%는 별도의 계정으로 농협 외 6개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산도 감독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상조회

무로 전화 080-412-4290 팩스 02-412-7290

인민군 전차 딛고선 영원한 일등상사

-빛나는 태극무공훈장 이명수 예비역 장교-



이명수 무공수훈자의 자서전
'인민군 전차 딛고선 영원한 일등상사' 표지

사병 최초 태극무공훈장 받아
1947년 3월 군에 입대해 강릉에서 군 생활을 한 이명수 무공수훈자는 6·25전쟁 당시 일등상사(군번 1800478)로 3사단 22연대 소대장에 복무했다.
1950년 7월 말 낙동강-동해남부선 방어 작전 당시 영덕전투에서 특공작전을 이끌어 인민군 전차 3대를 파괴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부하 사병을 구출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적진을 뚫고 들어가 전우를 구해냈다.

특공대 선두에 나서 전우구출
1950년 7월27일 오전, 경북 영덕을 방어 중이던 국군 22연대 2대대장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연대장으로 부터 특공습격대를 편성해 적의 전차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고 12중대 2소대장 대리근무를 하고 있는 이명수 상사에게 이 임무를 부여했다. 대대장이 특공대장으로 이 상사를 지명한 것은 그가 1947년 입대한 이후 여러 차례의 공비토벌작전에서 강한 투지와 기지를 발휘해 많은 무훈을 세운 바 있었기 때문이었다.

을 전차 안으로 집어넣고 뛰어내렸다. 몇 초 후 밤하늘을 찢는 듯한 요란한 폭발음이 울렸으며 2번, 3번 전차에서도 연이어 폭발음이 울렸다. 습격대원들은 그동안의 울분과 원한을 한꺼번에 씻어내는 통쾌함을 만끽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습격대는 재빨리 철수하여 138고지 동쪽 기슭에 이르렀을 때 적의 경계부대와 조우,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12명의 대원은 조금도 굴함이 없이 용전분투했으나 적의 강력한 화력 때문에 사상자가 생기고 2명이

#정전협정60년 맞아 자서전 출간

“어머니, 괴뢰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 <인민군 전차 딛고선 영원한 일등상사> 중에서 -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 이명수(87세) 상사의 특별한 이야기를 다룬 자서전 <인민군 전차 딛고선 영원한 일등상사>가 지난 6월에 출간되었다.
정전협정 60주년 보훈의 달을 맞아 무공수훈자 이명수 상사의 거주지인 서울 구로구청(구청장 이성)의 의뢰를 받아 협동조합 ‘은빛 기획(대표 노항래)’에서 펴낸 것이다.

이 자서전은 6·25전쟁에 참전한 전투 경험과 이후의 삶 등 6·25전쟁을 겪어온 세대의 공훈(功勳)과 회한을 담고 있다.
전장에 있는 3년 동안 ‘죽지 않으려면 죽어야 한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는 말을 수없이 되새기며 나라를 위해, 전우를 위해 싸운 이명수 상사. 현재는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을 견디며 병마와 싸우고 있다. 그의 자서전은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기 힘들기에 아내인 최순일 씨의 구술로 만들어졌다.

책 말미에는 아내가 병상에 누워 힘들어 하는 남편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쟁영웅, 나와 우리 겨레 생명의 은인, 일등 애국자가 당신입니다. 일어서요 내 남편”



“죽기로 싸우면 산다” 한밤기슭 고지탈환

우리 군은 그의 영덕 전차 파괴 특공전으로 1개 소대도 채 되지 않은 병력으로 22, 23 두 개 연대가 이를 수 있는 승리를 일궈고, 인민군 주력 부대인 2군단 5사단 병력을 일주일 이상 발을 묶었다고 평가한다.
그의 승전보는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국군의 자신감을 배양했고, 이어지는 크고 작은 승전보의 디딤돌이 되었다.
특공전의 승리를 발판으로 3사단은 빼앗겼던 영덕을 다시 탈환했고, 방어진지를 앞으로 밀어 올릴 수 있었다. 이런 공으로 그는 1951년 10월 사병 최초로 우리나라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 상사는 먼저 자신의 소대원 중에서 지원자 7명과 타 소대에서 4명의 적격자를 선발해 3개 조로 습격대를 편성하여 7월28일 21시10분에 적진으로 향했다.



영원한 일등상사 이명수

행방불명되고 말았다. 이 상사 등은 달려드는 적을 때려눕히면서 필사적으로 적의 포위망을 뚫고 아군 방어 지역으로 복귀, 임무 수행 결과를 보고했다.

습격대는 한 계곡에서 무질서하게 물을 마시는 적을 발견, 수류탄을 투척해 사살하고 4명을 생포했다. 이들을 앞세워 적의 전차가 있는 곳으로 전진해 나갔다. 적 전차는 모두 3대. 이 상사는 포로를 1개 조에 1명씩 배치, 이들로 하여금 전차에 탑승해 있는 각 전차장을 모두 밖으로 유인해 내도록 했다.

3명의 포로가 각기 전차로 접근해 해치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다급한 목소리로 암호를 냈다. 전차장이 무슨 급한 상황이라도 있는 줄 알고 묵직한 해치를 열고 상반신을 반쯤 내미는 순간 첫 번째 전차에 접근해 있던 이 상사는 손에 쥐고 있던 수류탄

대대는 전차 파괴에 힘입어 29일 여명을 기해 138고지 탈환을 위한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8부 능선 부근에서 공격이 지연되고 더 이상 진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이때 대대장은 11중대장에게 138고지 정상 탈환을 위한 특공대 편성을 지시했다. 이 상사는 적에게 포로가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하를 구출하기 위해 특공대원을 자원했다. 특공대 선두에 선 그는 결사적인 돌격으로 138고지 정상을 단숨에 탈취해 버렸다. 그리고 포로 8명, 소화기 66점을 노획하는 일대 전공을 세우면서 3명의 부하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자네가 세운 전공에 대해서 내가 들었네. 대한의 용사일세. 더욱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주게.” “예, 각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군인의 사명이란 목숨을 바쳐서 겨레를 구하고 생명으로써 나라를 지키는 일일세. 자네와 같은 군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북괴 침략군들을 이 땅에서 하루속히 괴멸시킬 수가 있는 결세. 여하간 용사야” 이승만 대통령이 이 상사의 등을 어루만져주었다.
상을 받은 그해 그의 계급은 상사였다. 그 후 임관을 해도, 군복을 벗어도(1963년 육군 대위로 예편) 영원히 ‘상사 이명수’로 불리고 있다.

“무공수훈자? 모른 사람 없도록 해야”

인민군간부 신상 찰찰 꺾어

무공수훈자들은 대한민국을 몸으로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해주신 고귀한 분들입니다. 무공수훈신문 창간을 맞아 박종국 서울특별시 지부장님을 인터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부장님은 6·25당일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는 의정부가 집입니다. 고3(당시 중6)이었는데 일요일이니까 조금 늦잠을 자자고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떨리서 은은하게 포성이 들리는 거예요.

실사 전쟁이 났더라도 별로 걱정을 안했어요. 당시 국방장관이 “민약적이 쳐들어오면 즉시 반격하여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으니 믿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무책임한 대국민 선포였지요. 당황한 군은 비상차량동원을 하였으나 의정부에 한 대가 있었는데 그나마 고장이라 동원도 못했다고 하니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지부장님은 어떻게 군에 들어 갔습니까? 군대 경력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마침 간부후보생 모집이 있더군요. 서울 청계초등학교 마당에서 시험을 봤지요. 경쟁률이 높았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육군종합학교(전시에 급조한 보병, 포병, 병기, 통신 등 종합교육기관)에 입학하여 이수하고 1951년 이른 봄에 흥안의 나이에 당당하게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3군단(유재 흥군단장)에 배속되어 소대장으로 싸우던 중 인민군에게 군단 전체가 포위되는 쓰라림을 겪고 철의 삼각지인 철원지구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전쟁 중에 대위로 진급되어 동해안 351지구 전투에 중대장으로 참가했습니다.

휴전을 앞둔 시기라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해야 하는 피 튀기는 격전이 연속 됐었지요

351고지는 그리 높지 않은 지형인데 여기서 3개월간 매일 전투가 벌어졌지요. 지금도 가슴 아픈 것은 38연대와 교대하여 후방으로 빠지니 중대원 3분의 1만 남고 나머지는 전사, 전상, 실종

초대석

박종국 서울특별시 지부장

인터뷰 : 신동설 (발행인, 국가안보미디어그룹 상임대표)



“우리 존재 알리려고 얼마나 노력 했는가”자책 무공수훈신문 창간 큰 기대 새로운 역사 시작한 박종길 회장에 박수

으로 결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쟁은 오늘의 전우가 바로 앞에서 쓰러져도 손 한번 못쓰고 눈물을 흘릴 째조차 주지 않는 냉혹한 현실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 입장이었어요.

지휘관인 나의 마음은 죄스러움과 자책감으로 몇 날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휴전이 되고 초등군사반 교육을 4개월 마치고 군단사령부(송요찬 사령관) 전략정보 업무로 근무 명령을 받았지요. 그때 인민군 초소 및 적정을 매일 브리핑을 하는데 인민군 초소들을 내 임의대로 변호를 매겨서 외우고 다녔어요.

“어제 인민군 몇 초소에서 몇 명이 어떻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니 복잡하게 좌표를 써가며 보고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쉽다고 칭찬을 받았지요.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 장군들 이름은 못 외어도 인민군 대령급 이상은 모두 신상을 찰찰 외고 다녔지요.”

“명예를 지키지” 공직 사퇴

제대는 언제 했으며 공직생활은 어디서 했습니까?

“57년에 학창복귀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학업을 마칠 사람들은 제대하여 끝까지 마치라는 정부의 배려였지요.

대위로 제대하여 당장 일자리를 가져야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봐서 115대1의 관문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그때는 서울시 공무원이 2,000명 정도였는데 장교출신이 2명뿐이었어요. 군에서 미 고문관과 같이 생활하며 정보업무를 했던 덕에 영어소통이 됐는데 마침 나를 사회과로 발령을 내더군요.

미군들이 고아원에 주려고 트럭으로 구호물자를 싣고 왔는데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였어요.

그 바람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핵심 부서를 돌아가며 했습니다. 당시는 ‘뺨’으로 통하던 세상이었지만 나는 자동으로 요직을 순환 근무했습니다.

시청 계량계장으로 발령이 난 후 밑에 15명 직원이 있는데 검찰에서 신분증과 수갑까지 배급되더군요. 걱정이 앞서는데 거예요.

이 친구들이 무슨 대단한 사법권을 가진 것처럼 시민들을 괴롭혀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이죠. 그러던 중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시작되면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면 상급자는 물론 차상급자까지도 처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불명예스런 공무원으로 남겠다는 생각이 들어 옷을 벗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피 흘려 지킨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살았는데 내 인생의 명예를 끝까지 잘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박수칠 때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그 후 봉사자의 길로 들어서서 무공수훈자회 서울지부장까지 맡으셨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주시지요.

“나는 공무원으로 있을 때 ‘뺨은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라는 신조를 가졌지요. 즉 자기의 위치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 정신으로 도봉지회장을 맡았고 금년부터는 서울시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1번지입니다. 25개 지회장과 자문위원회, 대의원, 유족회 등 관련소속단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25개 사무국장과 사무요원들이 회원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공수훈자 회원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대접받기 이전에 국가적으로 전 국민들로부터 존재가치의 상승에 걸 맞는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집안 식구들인 사무국 요원들부터 먼저 나이 드신 회원들을 극진히 대우하는 예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원들에게 잘해

드릴까' 를 먼저 행하게 하려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들로부터 인식전환이 새로워져야합니다. '무공수훈자회가 뭘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무공수훈자들을 모르다니...'하며 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홍보에 노력했나' 하는 자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창간되는 무공수훈신문은 매우 중요한 언론이 될 것이며 기대가 큼니다. 우리들의 말과 뜻이 통할 때 가장 큰 대한민국 '뺨'이 될 것입니다."

보신각 타종행사 때 보람

지부장으로 취임해서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금년 4월 25일 보신각타종 행사를 할 때였습니다. 보신각 타종은 대통령

이나 국가행사에서만 타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공수훈자의 날을 맞아 이날 지부 6명, 지회장 25명, 대의원 8명이 4개조 4명씩으로 조를 짜서 타종 했습니다. 너무 감격적인 시간이었죠. 정전 60년이 흐른 지금, 타종 행사는 서울시민들에게 무공수훈자들의 존재를 알리는 시작의 알림이며 전 국민

있을 때 택시를 타게 되지요

누구와 식사를 할 때 가끔은 내가 밥값을 내야 노인으로 체면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교통비를 쓴다고 해도 한 달 2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평균나이가 84세입니다. 불과 4~5년 이내에 대부분 가야할 한시

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무공수훈신문의 창간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박종길 회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문을 통해 박 회장님의 주요시책과 공약사업인 대국회 활동과 무공수훈자회의 선양사업, 그리고 장례단 사업에 많은 성과와 홍보가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 회원들 간의 결속과 지금심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타 보훈단체에서 엄두도 못내는 신문을 무공수훈자회에서 발행한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저는 무공수훈신문을 통해 무공수훈자들의 애국심과 존재가치가 크게 함양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무공수훈신문을 창간케 노력

무공수훈신문 발행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
무공수훈자들의 애국심과 존재가치 함양

들과 세계만방에 선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바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경우 아침에 출근할 때 전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탑니다. 하루 왕복 2,300원이 듭니다. 때로는 급한 일이

적 인생이지요

그러니 정부당국자들이 깊이 생각해서 좀 더 우리를 위한 혜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탁도 국가가 어렵다면 어른인 우리들이 먼저 양보하고 이해심을 가



이날 박종국 지부장(가운데)과 자리를 함께한 서울지부 가족. (왼쪽부터 반희순 사무요원, 황재휴 사무처장, 박옥란 유족지부장, 정복수 행정과장)

♠ 건강 코너 ♠

치매 예방법 베스트 7가지

전 세계의 치매예방 논문 161 편을 면밀히 분석, 대표적인 치매 예방법 베스트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권장키로 하였다.

- 1. 매일친구를 만나고, 집 청소를 하라(최고수준)
-3가지 매일 실행 시 80% 예방가능.
- 2. 활발한 두뇌활동이 인지가능 저하 예방 (최고수준)
-읽기쓰기 이메일, 책, 신문, 읽기, 약기배우기
- 3. 주3회 이상 걷기 운동 (매우 우수) 1회에 30분 이상, 3,4km
- 4. 전혀 음주를 안 하고 건강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
- 5. 아마씨, 콩우유와 과일주스를 마시자. (매우 우수)
아마씨는 오메가-3가 풍부하여 뇌 세포를 보호, 콩우유는 뇌신경보호, 과일 아체는 뇌혈관 보호
- 6. 비타민C, E와 엽산 보충제 복용한다. (매우 우수)
-복용한 사람은 50~66% 발병률이 낮게 됨.
- 7. 담배를 끊지 않고는 효과가 없다
- 흡연은 신경세포를 사멸 치매가능성을 높인다. 치매 확률이 3배 높다.

무공수훈 한마음... 나라사랑에 앞장

서울지부 (지부장 박종국)



•도봉구지회(지회장 김 영춘)는 8·15 등 국경일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지부 (지부장 임영길)



• 부산지부 회원 46명은 8월10일 (토) 섭씨 35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충북 괴산의 충훈탑을 참배, 호국전몰 영령들을 추모했다. 그리고 인근 항일 지사 홍범식선생 고택과 괴산호, 쌍곡 9곡, 연풍성지 등 현충시설, 문화유산 등을 탐사하는 뜻 깊은 하루를 가졌다.



• 임영길 지부장은 7월1일부로 제16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다시 위촉되었다. 1991년부터 20여 년간 평통위원으로서 다양한 통일운동을 전개하여 온 그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대구지부 (지부장 우기원)



• 대구지부는 8월 10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안보단체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국자원봉사연맹(총재 안천웅)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3일과 24일에 지부장, 중앙대의원 등 간부 12명이 홀몸 노인들에게 중식

을 제공하는 무료급식소 천사의 집에서 배식 자원봉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지부 (지부장 김재호)



• 인천지부 유족회(지부장 조남춘)는 7월 25일 지회 유족 독거노인들에게 쌀과 밀가루, 라면, 멸치 등을 전달하였다. 김옥희 중앙 유족회 명예회장과 유족회 인천 지부장 및 10개 유족지회장은 독거노인들을 매월 방문하여 돌보고 있으며,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광주지부



• 광주광역시 지부는 위국헌신 국가유공 안보역군으로서 회원들의 대동단결과 안보의식 고취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지난 8월 23일 금요일 안보결의대회 및 가연회를 개최하였다.

대전지부 (지부장 이정수)



• 대전지부는 7월 15일 'NLL수호 국민 각성 촉구대회'를 열고 "NLL수호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울산지부 (지부장 이승구)



• 울산지부 회원 100여명은 지난 7월 20일 시민단체와 보훈단체회원들

과 함께 전국 희망버스 현대자동차 진입데모 반대 꺾기대회에 참석했다.

경기지부 (지부장 기노영)



• 연천군지회(지회장 변희순) 육종관(57세) 자문위원은 지역 요양원의 어르신들과 오지 군부대 장병들에게 이발봉사를 하여 칭송을 듣고 있다.



• 평택시지회(지회장 국중화는) 7월 15일 전적지 순례행사를 가졌다. 유족회원을 포함한 회원 70여명이 대전현충원에서 합동 참배를 올리고 논산 백제 군사박물관과 6·25전쟁 및 월남 참전탑을 답사했다.



• 고양시지회(지회장 이범식)는 8월 26일 오전 회원50명이 참석한 월례회의에서 지회장이 사회적 경제구조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 수원시지회(지회장 이의철)는 지난 7월 22일 장마철을 맞아 올해 수범사업의 하나인 환경미화운동을 벌였다. 이날 항공광장 일원~팔달문-영동시장-북계천을 돌며 각종 오물을 수거하였다. 행사가 끝난 뒤 회원들은 지동시장 순대국집에서 해장국을 들며 답소를 나눴다.

강원지부 (지부장 황용기)



• 부설유족회(지부장 백급자)는 지난 6월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남편을 모신 춘천·동해·삼척시지회 유족회원 대상으로 추모 및 참배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유족회원 79명이 자랑스럽게 먼저가신 남편들의 고귀한 영혼과 자신의 동경심을 달래는 계기가 되었다.



• 원주시지회(지회장 김길래)는 지난 6월 25일 원주시와 함께 관설동근린공원에서 '무공탑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황용기 강원도지부장은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무공탑 건립에 대한 공적으로 감사패를 증정했다.



• 양구군지회(지회장 홍현달)는 지난 6월 14일, 7월 10일 2회에 걸쳐 21사단 장병 450명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보 강연은 전후세대인 장병들에게 6·25남침전쟁 당시 생생한 증언과 북한의 실체를 설명하여 확고한 반공정신을 고취시켰다. (사진) 또한 지난 6월 21일 양구고등학교에서 교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6·25 참전 체험담을 내용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 수해회원에게 위로금 전달 황용기

강원도지부장은 8월 16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토마토농장에 피해를 입은 춘천시지회 차용빈 회원과 흥천군지회 맹옥란 유족회원의 농가를 방문, 이인숙 춘천보훈지청장의 위로금 전달하고 격려했다.

충북지부 (지부장 이종각)



•충북지부 영동군지회장(김명연)은 2013년 8월 14일 무공수훈신문 창간호 인터뷰(지회장 취재코너)를 하였고 이를 독려 차 충북지부 지부장(이종각)과 사무처장(김경시)이 영동군지회를 방문하였다.



•충북지부 지부장(이종각)은 사무처장(김경시)과 함께 2013년 8월 19일 증평군지회를 방문하여 이·미용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은 『증평군보건복지타운』내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증평군지회장(조진규)을 필두로 구성된 이·미용 봉사단이 수고를 해주었다.

충남지부 (지부장 장기일)



•세종시지회(지회장 정태조), 공주시지회(지회장 전대규)는 매년 역점사업으로 6·25 추모행사와 8·15를 즈음하여 태극기를 나눠주는 나라사랑 활동에 많은 회원이 동참하고 있다.

경북지부 (지부장 이태영)



•도지부(지부장 이태영)는 2013. 6. 28 대구청 관내 9개 시·군지회장단 협의회를 김천시지회 주관으로 김천문

화예술회관에서 지부장,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9개 시·군지회 간부 회원 및 유족지회장 등 25명이 참석하고 내빈으로는 박보생 김천시장 및 시청보훈담당장관계관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도지부 활동상황 등을 전달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지회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나누었다.



•도지부(지부장 이태영)는 2013. 7. 2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이종근 청도군수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종근 청도군수는 평소 본 지부 관내 청도군지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고, 특히 도지부 장례단 행사시에는 매년 이른 새벽 시간임에도 영결식에 참석하여 유가족 및 장례행사 단원을 위로 격려 해주어 도지부장 및 사무처장, 청도군지회장, 간부회원, 청도군주민생활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하였으며 예정에 없던 군수님과 오찬을 하며 장례단 행사 취지와 여러 현황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경남지부 (지부장 김유성)



•경남지부는 지난 7월 25일 전쟁영웅 일곱 분의 대전 현충원 합동 이장 영결식을 가졌다. 이날 이장식에는 김유성 경남지부장과 유족회원, 장례단이 참석하여 먼저 가신 선배 전우님들이 좋은 곳에서 편히 잡드시길 기원했다.



•원로회원 위안행사 7월 30일 원로회원들을 초청하여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지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지부 (지부장 김창호)

•전북지부 회원들은 지난 7월 11일 개미고개 추모제에 참석하여 6·25 참전 미군 전사자 517명을 추모했다. 개미고개는 미군들이 1950년 7월 11일



물밑듯이 남침해오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전투하다 장렬히 전사한 곳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이종정)은 7월 10일 남원시지회 회원인 김신형(82) 6·25참전 국가유공자 집에서 '나라 사랑 행복한 집' 836호 준공식을 가졌다.



•순창군지회(지회장 설동문)는 지난 7월 16일 나라사랑 결의대회 및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했다. 설 지회장은 나라사랑 배지를 회원에게 전달하면서 "나라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군지회(지회장 성홍제) 회원 이호종 전 고창군수 공적비 제막식이 지난 6월 5일 고창 소나무공원에서 있었다. 국회의원도 지낸 이호종 전 군수는 6·25전쟁 시 육군 장교로 입관 3사단에서 김일성 고지 전투에 참전하여 혁혁한 성과로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2회, 화랑무성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전남지부 (지부장 변재헌)



•영암군지회 신대제 지회장은 7월 1일 아침 이명재 목포보훈지청장, 정광

덕 영암 부군수, 군 보훈7개 단체장 등 20명과 함께 영암공원 충혼탑을 참배했다.



•보성군지회 이용길 지회장은 지난 7월 5일 자문위원 5명과 보훈단체회장들과 함께 지역 군부대를 위문하였다. 이날 부대에서 대접을 받으며 서바이벌 총 쏘기(사격)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하루를 즐겼다.



•광양시지회(지회장 백운기)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8월 14일 아침 범시민 운동으로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벌였다.

제주지부 (지부장 오승환)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7월 29일 2013년도 '나라사랑 통일안보교육 명예교사 운영제'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부터 위촉받은 명예교사는 16명이다.



•8·15 태극기달기 캠페인이 8월 14일 제주시청 광장에서 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주시지회(지회장 김치홍)는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과 함께 태극기 게양방법 등이 담긴 전단지 배부하고 태극기 없는 가정이나 상가에 150여개의 태극기를 나눠주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안보교재 펴낸 교장 출신 지회장

“국가의 안보가 최우선이다”

탐방

김명연 영동군 지회장

전문

무공수훈신문 창간을 맞아 충북 영동군지회 김명연 지회장을 방문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지역 내 중학생(상촌중, 영동중, 심천중) 40명을 데리고 국립서울현충원, 전쟁기념관, 국립과학관 견학 행사를 해 왔다. 그리고 견학을 갔다 온 학생들 모두 소감문을 써내게 하여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포상을 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성과도 냈다.

또한 회원들과 함께 전적지를 순회 방문하여 그날을 되새기며 국가관을 새롭게 다짐하는 등 수많은 행사를 일 년 내내 쉼 없이 진행해 오고 있다.

그 밖에도 자체적으로 국가안보교재를 발행하여 전 회원과 도내 요로에 배포하고 있다. 이 교재는 타지에 나가있는 손, 자녀들에게 할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알기 쉬운 안보강의로 변신하기도 한다.

취재 : 신 동 설
· 발행인

82세 노령에도 젊은 열정으로

이 같은 일들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피 흘려 지킨 호국의 영웅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지역 중학생 등에게 안보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김명연 지회장

“호국영웅 업적 보여주고 소감 받아 학생들이 현대사 쉽게 알도록 해요”

6.25와 월남전이 먼 옛날이야기처럼 알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직접 보고 느낀 점을 글로 쓰면서 국가관과 우리의 현대사를 이해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 그들이 먼 훗날 꼭 같은 방법으로 후세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공식명칭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영동군지회’라는 이름으로 뭉친 회원은 정회원 62명과 유족회원 26명이지만 그나마 나이 들어 눈이 흐리고 귀가 어두워 활동이 불편한 분들을 제외하면 몇 안 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힘은 백만 대군을 호령할 수 있는 기개와 천년을 두고 흐를 수 있는 대하와 같은 정신이

흐르고 있다.

그 중심에 교장선생님 출신 김명연 지회장이 8순을 넘긴 분 같지 않은 젊음을 발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김명연 지회장이 펴낸 안보교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건강해야 일할 수 있다’ ‘회원들의 형편을 잘 알자’ 는 취지에 병들고 어려운 회원들을 전화 또는 방문하여 위로와 약간의 성금을 드리는 한편 타계 시 조기를 달아주며 가신 분들을 기리는 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덕망 있는 지역 유지다.

지부와 지회 일사불란한 모습

또한 이날 자리를 함께한 원로 정만영 2대 지 회장, 박래영 자문위원장과 하진명 자문위원, 그리고 황명주 지도위원들의 외관에서 풍기는 전형적인 충청도 양반 모습에서도 영동군지회의

일사불란한 질서체계와 협조체제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충북지부 이종각 지부장도 김경시 사무처장과 함께 청주에서 한 시간 반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와 동석하여 지회장에게 최대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도내 12명의 지회장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잘 단결되어 있다며 매우 고마운 분들이라고 자랑을 한다.

이 지부장은 2005년 ‘4대 가족 화합상’을 수상한 것만으로도 그의 인성과 인격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노인들을 위한 발마사지 봉사를 비롯해 도지부 사무처장을 수년간 맡아 봉사하다 지부장이 된 분이니 그 인품이 어떤 사람인지 더욱이 일반하다.

지부장을 맡은 후 “숙원사업은 무엇입니까?”를 질문했더니 당장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엘리베이터시설이 있는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사무실에 있을 때 계단에 오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지부장! 나 지금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올라가겠어. 내려와서 얘기좀 해” 하며 계단까지 와서 올라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하루에 많게는 열 번 이상 내려오라고 하신 단다.

지부장 역시 일하다 말고 뛰어 내려가기를 밥 먹듯 한다며 불편한 분들께 여간 죄송한 일이 아니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목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무공수훈신문 구독신청 79%

무공수훈신문은 호국안보, 나라사랑, 무공수훈자의 위상과 금지제고의 결정적 언론이라며 신문이 많이 읽혀야 무공수훈자회가 빛난다고 했다.

그 결과 충북도지부 회원의 구독 신청률이 1차 14%였던 것이 36.8%로 높아지는 큰 성과를 냈다고 했다. 그렇게 상승시킨 동기는 영동군지회의 79%라는 높은 구독신청의 노력이 기폭제가 되었고 방법을 벤치마킹한 결과라며 김명연 지회장께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종각 충북지부장님, 김명연 영동지회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박래영, 하진명, 황명주님과 영동지회 회원여러분들의 건강과 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날 김명연 영동지회장 인터뷰에 자리를 함께한 이종각 충북지부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김경시 사무처장 그리고 영동군지회 정만영 2대 지회장, 박래영 자문위원장, 하진명 자문위원, 황명주 지도위원.

류근일의

정론직필

심리전, 선전선동이야말로 공산주의 자들과 나치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북한은정전 기념일을 '전승절' 운운 하며 대규모 열병과 아리랑 공연으로 세인의 이목을 끌려 했다.

이걸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외부인은 물론 내부인도 “그런가?” 하고 속게 된다. 사람은 별 게 아닌 까닭이다.

광우병 소동 때 보지 않았는가?

다행히 박근혜 정부는 많은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핵을 폐기하라”는 연설도 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역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잊혀가는 한국전쟁”을 새삼 상기시켰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일본은 “독도는 우리 땅” 하는데 우리가 만약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세계 사람들은 “그런가?” 하게 된다. 그게 귀 얽은 인간이

국가적 儀典 장엄해야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한미 양국 대통령이 7월 27일 정전 기념일에 그날의 의미를 바로 세운 것은 뜻있는 일이다

다. 그리고 그게 심리전, 선동선전이라는 것이다.

6.25나 정전 기념일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6. 25는 북침, 정전은 우리의 승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취효과, 세뇌효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자유사회는 심리전, 선동선전에서

아무래도 좀 약하다.

정부도 무관심하고 국민, 시민도 무관심하다. 우리는 이 무관심에서 남달리 좀 더한 것 같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승절’ 어찌고 하면 그냥 “웃기는 X들...” 하며 무시하고 만다. 그러나 웃기는 게 아니다.

나치스의 괴벨스는 “거짓말도 크게

하면 진실처럼 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 국가론은 “국가는 야경(夜警)꾼 노릇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견 아니다. 자유 사회에서도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와는 다른 양식으로 국가의 명예를 지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7월 27일 정전 기념일을 기해 모처럼 앞장서서 그날의 의미를 바로세우는 행사를 하고 의전(儀典)을 갖춘 것은 이 점에서 뜻있는 일이었다.

우리도 이제는 국가적인 의전(ritual)을 장엄하게 치르는 국가와 국민이 되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의전을 중시한다. 결혼식은 뒷전이요 사진 찍고 밥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서야 어떻게 선진시민이라 할 수 있겠나?

Zoom In

6·25전쟁 정전 60주년 韓·美 기념행사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박종길 회장



미 웰링턴 국립묘지서 헌화하는 오바마 대통령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유엔참전용사추모식

정부는 6·25 정전 60주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공포하고 서울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함께 지켜온 60년 함께 나아갈 60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국내외 인사들 함께 본회 박종길 회장 등 회원 20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의 결의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미 워싱턴DC 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열린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참석하여 성대하게 열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훈 대통령 특사와 함께



정전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6·25참전용사들



미 정전 60주년 기념식서 연설하는 오바마

성명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이번 국가정보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의혹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압수수색과
관련사건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한 신속한 조치를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 국회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하라!
- 검찰은 혁명조직 비호세력까지 철저히 추적 분쇄하라!
-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이적단체를 해산하라!
-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간첩과 중복세력을 척결하자!

2013. 9. 3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피를 보지 않으려면 지금 여기서 불을 꺼야 합니다”

본부

서울특별시지부	부산특별시지부	인천광역시지부	대구광역시지부	대전광역시지부
광주광역시지부	울산광역시지부	제주자치특별지부	경기도 지부	강원도지부
충청북도지부	충청남도지부	경상북도지부	경상남도지부	전라북도지부 전라남도지부

·무공훈장·보국훈장 받은사람 신문·나라사랑 알리기 신문



무공수훈신문

무공수훈신문은

- * 무공수훈자들의 호국정신을 보도한다.
- * 조국을 위해 몸바쳐온 회원들의 자랑스런 이야기를 보도한다.
- * 호국 영웅들의 긍지와 명예를 심층 보도한다.
- * 후손들에게 무공수훈자들의 호국정신을 교육시키며 알린다.
- * 무공수훈자회의 하는 일들과 회원들의 소식을 전한다.
- * '특별부고'란을 신설하여 조국을 지키다 가신님을 기억하게 한다.

구독료 : 매월 3,000원 (연간 36,000원)
 발행처 : 국가안보미디어그룹
 간 별 : 격주간 (매월 2회)발행 타블로이드판 (본지크기)
 페이지 : 16면 (칼라8 흑백8)

※무공수훈자회 회원들에 한하여 월 2,000원 (연간 24,000원)으로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구독신청: 무공수훈자회 소속지회 또는 1855-0415